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CORNERSHOP IN COCKLEBERRY BAY

가제 : 커클베리의 구멍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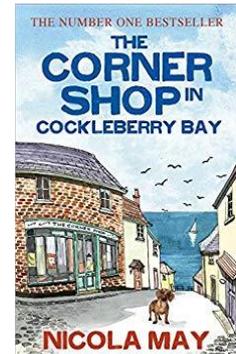
저자 : Nicola May

출판사: Nowell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9일

분량 : 364 페이지

장르 : 로맨틱 코미디



\* 아마존 로맨틱 코미디 부분 1위

\* 20만부 판매 기록 달성

\*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이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 베스트셀러 『The Magnificent Mrs. Mayhew』의 저자 밀리 존슨

어느 날 한 법률 대리인이 로사 라킨을 찾아와 그녀 앞으로 누군가가 데본에 있는 가게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했을 때 로사는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다. 로사는 대리인이 건네 준 서류 가방을 들고 일단 서둘러 자신의 일하는 곳인 슈퍼로 달려갔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그녀는 지각을 했고 출근하자마자 해고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리 기분 나쁠 일도 아니었다. 어찌 되었든 그녀는 이제 한 가게 점포의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로사는 자신의 반려견인 핫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섰다가 우연히 친구 조쉬를 맞닥뜨렸다. 로사는 조쉬에게 오늘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사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부모 모든 친척이든 자신과 조금이라도 혈육으로 묶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로사에게 유산을 남긴 것이었다.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람조차 어느 날 서류들과 행정 처리에 들 비용 등이 동봉된 가족 파일을 우편으로 받았을 뿐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로사는 조쉬와 함께 대리인이 건네 준 가족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로사에게 가게를 남긴 사람이 쓴 편지와 돈이 들어있었다. 의문의 피상속자는 편지를 통해, 로사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할 필요가 없으며 동봉된 2000 파운드로 데본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요구 사항으로는 절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나중에 로사가 판단했을 때 가게를 이어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때 가게를 넘겨주라는 것이었다. 로사는 짐을 싸고 바로 다음

날 반려견 핫과 함께 그 가게에 가보기 위해 작은 해안가 마을, 데본의 커클베리 베이로 떠났다. 어느 덧 기차는 커클베리 역에 도착했고 그녀는 깡깡대며 캐리어를 옮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반려견 핫이 커피 판매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판매대 직원에게 커피를 살짝 흘리고 말았다. 자신을 셉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로사를 바라보더니 오히려 활짝 미소를 지었고 추운 날씨 속에서 택시를 찾고 있던 로사를 숙소까지 내려다주겠다고 했다. 로사는 낯선 마을에서 자신의 존재를 쉽사리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자에겐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에 온 것은 맞지만 가족들과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작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로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과 정다워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얼마나 자신이 살던 런던과 다른지 새삼 깨달았고 자기도 모르게 회상에 빠져들었다. 로사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로사의 출생 증명서에는 아빠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섯 살이 된 로사는 결국 사회복지법에 따라 어머니를 떠나 한 부부의 집에 위탁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입양 계획은 무산되었고 로사는 그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상처가 많은 미숙한 어른이 되었다. 그 순간 로사의 눈에 ‘구멍가게’라고 적혀있는 그 가게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셉은 그 가게가 전 운영자인 마이어씨가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이나 닫혀있었다고 알려주었다. 로사는 그 초라한 가게를 보면서 문득 지금까지 잘못된 인간관계와 섹스에 빠져 지냈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로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 본 선물이자 첫 집이 될 그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게다가 가게 위층에는 아담한 집이 마련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작은 테라스까지 있었다. 로사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로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와 집을 수리할 계획을 세웠고 우선 배관공을 불렀다. 로사의 예상과 달리 배관공은 이십 대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로사는 루크라는 그 청년에게 단번에 호감을 느꼈고 여태껏 그녀를 스쳐간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로사는 원래 결심과 달리 오늘 처음 만난 이 배관공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와 미스터리 피상속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다 털어놓았다.

로사는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는 시기에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재밌는 구석을 가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 로사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집을 찾게 될까? 한 여자가 미스터리애 싸인 행운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니콜라 메이 (Nicola May)는 10권의 로맨틱 코미디 소설을 쓴 작가이며 그녀의 모든 작품은 킨들 베스트셀러에 목록에 올랐으며 이 중 두 작품으로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THE PERFECT CHILD  
가제 : 완벽한 아이  
저자 : Lucinda Berry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369 페이지  
분량 : 2019년 5월 1일  
장르 : 스릴러



**\*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 베스트 셀러**

**\* “어둠과 위험이 가득한 중독적인 이야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결코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 셀러 작가, 민카 켄트**

간호사인 한나와 의사인 크리스토퍼 부부는 너무나 완벽한 잉꼬 부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단 한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속을 태우는 중이었고 여러 번의 유산 끝에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제니라는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는 곧 제니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가 제니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건 부모의 학대 때문에 크리스토퍼가 일하는 병원에 제니가 찾아오게 되면서부터였다. 제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섯 살 소녀였고 크리스토퍼는 그런 제니를 보자마자 제니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다. 크리스토퍼는 정성을 다해 한나를 설득했고 제니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하지만 제니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고 부부의 예상과는 달리 제니생각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있었다. 제니는 크리스토퍼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한 애정을 쏟아 부었지만 한나에게는 점점 오싹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니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고 한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압박감에 시달렸다. 게다가 남편인 크리스토퍼는 제니의 진짜 모습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한나는 제니가 크리스토퍼와 자기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제니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나는 자신이 비로소 진짜 자신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제니가 한 주차장에서 기저귀와 개 목걸이만 한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의료진들은 제니의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심각해 유아로 착각할 정도였고 성장판 검사를 하고 나서야 제니의 나이가 사실 여섯 살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제니가 자기 생각 보다 더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크리스토퍼는 한나와 자신이 제니의 비참했던 인생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한나에게 제니를 입양하자고 말했다. 부부는 제니의 사연과 제니가 다른 위탁 가정에 가더라도 또 학대에 노출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 제니와 적응 기간을 가져 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입양에 앞서 부모에게 제니가 아동학대증후군을 앓고 있으니 앞으로 제니의 성장과정에도 후유증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기초적인 배변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제니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크리스토퍼를 물었고 스스로 머리를 땅에 짚으려고 하는 제니를 말리자 말리는 한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제니의 불안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크리스토퍼는 다시 직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제니의 치료사는 크리스토퍼에게 제니가 계속 한나와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제니가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크리스토퍼 역시 제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크리스토퍼는 치료사가 말한 대로 제니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불안해진 제니는 병원에서 깨매야 할 정도로 자신의 아랫입술을 무자비하게 물어 뜯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토퍼는 한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니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변기 훈련을 시키느라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유치원 등교 첫날 화장실에서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 후에도 제니는 매번 자기의 변을 유치원 선생님에 던지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제니는 운 좋게도 그 후 다시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미끄럼틀에서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하는 바람에 또 퇴학을 당했다. 하지만 부부는 제니를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제니가 곧 새로 태어날 아이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새끼 고양이를 데려온 첫날 밤 제니는 부부의 희망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잔인하게 고양이를 바늘로 찔러댔다. 한나는 제니에게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고양이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마 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부부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고 한나는 육아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갔지만 제니는 자신의 기운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활발했다. 게다가 제니는 한나의 위협에 맞서기라도 하듯 고양이를 죽여 고양이 따위는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는 한나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기 콜처럼 자기도 한나의 젖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자신과 제니 사이의 유대 관계를 만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허락했다. 하지만 제니는 한나의 가슴을 여섯 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심하게 물어뜯었고 유방염에 걸린 한나는 모유수유까지 중단해야 했다. 이 사건 직후 한나는 제니가 콜까지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졌다. 작은 악마가 한 행복한 부부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벌어지면서 펼쳐지는, 반전과 반전이 반복되는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루신다 베리 (Lucinda Berry) 박사는 트라우마 전문 심리학자이자 아동 트라우마 연구원이다. 그녀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사용하여 심리 스릴러를 집필하고 있다.

제목 : THE CREAK ON THE STAIRS

가제 : 계단이 삐걱거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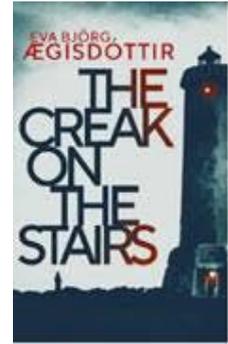
저자 : Eva Björg Ægisdóttir

출판사: Orenda

발행일: 2020년 4월 예정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2018년 아이슬란드 블랙 어워드 범죄 소설 부문 수상작**

**\* 아이슬란드 베스트 셀러 1위 기록**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살고 있던 수사관 엘마는 결국 실패하고만 9년간의 연애 관계를 미련 없이 떨쳐내고 부모님이 있는 고향 마을 아크라네스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기만 해 보였다. 하지만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과거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다.

이 촌 마을에서는 엘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엘마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엘마는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애써 웃음을 짓느라 고향에 온 지 5 주 만에 벌써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 엘마는 곧 다시 일거리를 찾게 되었다. 아크라네스 범죄 수사과 과장인 호러디시가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자는 솔직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던 중, 엘마가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안가에서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제 막 첫 데이트를 시작한 아나와 레이니르는 마을의 오래된 한 등대에 몸을 숨긴 채 은밀히 사랑을 속삭이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놀란 아나와 레이니르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등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인기척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 순간 아나의 눈에 등대 근처 바위 사이로 수상한 형체가 들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체였다. 엘마를 비롯한 수사 과장 호러디시, 엘마의 동료 사이바르는 모두 이 지역의 토박이였지만 경찰 중 아무도 검은 코트를 입은 채 해안가 바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물에 반쯤 빠져있었던 사체의 상태와 목에 난 상처로 보았을 때 이 여성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나이는 삼사십대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곧 아크라네스 주변 지역에서 사망자와 비슷한 연령대를 가진 한 여자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실종자의 남편을 찾아갔다.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 결과, 실종자와 등대 근처에서 살해된 여성은 동일 인물이었다. 사체의 주인은 바로 어린 시절 잠깐 아크라네스에 산 적이 있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였다. 삼십 대 중반쯤 된 그녀는 파일럿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과 레이카비크에서 만나 결혼한 후 아크라네스에서 두어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은 아내가 아크라네스에서 잠시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가 평소처럼 비행 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중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것이라고 했고 그녀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크라네스에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엘마는 엘리자베스가 왜 그렇게 이 마을을 싫어했는지, 그렇다면 아크라네스에 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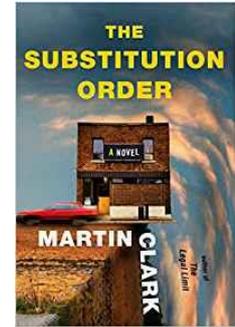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 이 마을의 유지나 다름없는 집안의 아들인 자니와 함께 살고 있는 마그네아는 자니의 친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사실 마그네아는 아침부터 받은 불쾌한 이메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지만 자니는 손님맞이에 쓸 고기를 손질하며 신이 나있었다. 그 때 초인종이 울렸고 마그네아는 벌써 손님이 왔을 거라는 생각에 반갑게 웃으며 현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관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서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오늘 아침 마그네아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낸 여자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여자는 마그네아가 자기가 보낸 메일에 아무런 답이 없자 직접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마그네아는 일단 누가 보기 전에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그 여자에게 오늘 저녁 마을 등대 근처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아크라네스에서 살인 사건처럼 큰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드문 일이어서 조용하던 마을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호러디시 과장은 사체의 신원이 밝혀지자 어떤 일인지 자꾸 이 사건은 대충 하루 빨리 해결되고 다시 마을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호러디시 과장은 엘마가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려고 애썼다. 엘마는 호러디시 과장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지역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한 동료 사이바르와 함께 아크라네스에 남겨진 엘리자베스의 흔적을 뒤쫓던 중 그녀의 친척들로부터 엘리자베스가 아크라네스 주변을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엘마는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 이 마을에 살았던 시절 선박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이후 동생도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 정신을 놓고 살던 엘리자베스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엘리자베스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엘마와 사이바르는 겉으로는 완벽한 애처가처럼 보이는 그녀의 남편 역시 용의선상에 올려 놓게 된다. 엘리자베스의 어린 시절 비극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순박하고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 얼굴 뒤에 감춰진 어둠과 한 여자의 어린 시절 비극을 파헤치는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에바 비오르크 애기스도티르 (Eva Björg Ægisdóttir)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할 당시, 블랙어워드 수상작이자 아이슬란드 베스트셀러인 이 소설을 썼다. 이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THE SUBSTITUTION ORDER  
가제 : 불량 변호사  
저자 : Martin Clark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SA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현직 판사가 쓴 법정 스릴러**

**\* “모든 독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진정한 악마의 통쾌한 복수”- 「워싱턴 포스트」**

한때 잘나가는 변호사였던 케빈 무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그 여름 이후 아내와도 헤어져야 했고 그의 인생은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돈은 부족한데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도 찾지 못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궁상맞은 샌드위치 집에서 일하면서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어떤 낯선 이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손에 오물을 묻히고 싶지 않았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만다

1년 전만 해도 케빈은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던 유능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는 6월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오븐까지 켜면 완전한 한증막이 되는 써브티튜션이라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장은 조금이라고 단가를 낮춰 보겠다고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고기를 샌드위치에 넣어 팔았고 쿠폰 도장 하나에 목숨 거는 손님들은 궁상 맞은 케빈만큼이나 한없이 궁상맞은 신세들이었다. 케빈은 현재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사촌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대가로 틈틈이 농장 일도 도와주고 있었다. 그나마 스스로도 기특해할 만한 일은 그가 300일 동안이나 마약에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낯선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통통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하얀색으로 염색한 듯한 머리에 수트와 넥타이까지 깔끔하게 단장을 한 남자였다. 하지만 케빈은 그 깔끔한 남자에게서 풍겨오는 음울한 기운 때문에 그가 혹시 장례식장에 다녀온 건 아닌지 의아했다. 케빈이 고객을 맞이하는 정중한 어투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대뜸 케빈의 이름을 성까지 정확히 대며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 낯선 남자는 곧 이어 케빈에게 잠시 둘만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 물었고 그가 보험판매원이라고 추측한 케빈은 그 남자를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케빈의 예상과 달리 보험판매원도 아니었고 보호감찰관도 아니었다. 그 남자는 케빈에게 그가 들으면 좋아할 소식이 있다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다. 칼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낯선 남자는 다짜고짜 케빈에게 그가 이런 곳에 있을 인재가 아니라며 은근히 그를 치켜세웠다. 아마도 이 칼럼이라는 작자는 이미 케빈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케빈에게 수백만 달러가 걸린 보험 사기에 합류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케빈은 본능적으로 그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보호감찰 하에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또 불법적인 일에 휘말린다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인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케빈은 그를 당장 가게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지만 칼럼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름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칼럼은 케빈의 옛 고객이었던 멜라이 컬프라는 여자가 이 프로젝트의 멤버라고 소개했고 케빈의 무지한 변호 때문에 엄청난 돈을 잃은 그녀가 케빈이 직접 이 일에 참여해 그 빚을 갚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은 당시 멜라이는 계약에 문제가 없을 경우 케빈에게 그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케빈의 부주의로 계약 기간을 놓쳐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그 사이 A사가 그 땅을 샀고 그 땅을 B사에 다시 5백만 달러에 팔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케빈이 멜라니가 의뢰한 95만 달러짜리 토지 계약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멜라이는 토지 구매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었다. 즉 이 모든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멜라이와 칼럼의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그들의 다음 시나리오는 바로 자신의 대리인인 케빈 때문에 큰 돈을 잃은 멜라니가 케빈을 고소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케빈의 법무 보험금이었다. 법률상 케빈이 자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법률보험금을 요청하면 멜라이에게 대신 5백만 달러를 보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케빈은 더 이상 범법 행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고 칼럼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자 칼럼은 이미 훌륭한 해커들이 케빈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법 행위들을 다 알아냈으며 멜라이와 법률 상담을 할 당시에도 코카인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추가할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케빈이 칼럼의 제안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보호감찰관들이 그에게 찾아와 갑자기 마약 테스트를 하려 했고 그의 자동차를 수색했다. 케빈의 차에서는 그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총들이 발견되었고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일로 케빈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자신이 칼럼과 멜라이가 기획한 계약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알아챘다. 하지만 케빈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별거 중인 아내는 케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때문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케빈은 직접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만이 불의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곡된 경제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은 평범한 가족의 집을 빼앗고 있었고 건강보험회사에서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케빈은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천재해커인 친구와 그의 용맹한 반려견이 있었다. 케빈은 감옥에 갇힌 채, 사기꾼들과 협박에 맞서게 된다. 작가의 위트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법정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마틴 클라크 (Martin Clark)는 미국 버지니아 주 판사이자 작가이다. 전 작으로는 2000년 뉴욕 타임즈 선정 '주목할 만한 책'에 선정된 『The Many Aspects of Mobile Home Living』이 있다.

## NON-FICTION

제목 : DISNEY AND PHILOSOPHY

가제 : 디즈니 월드와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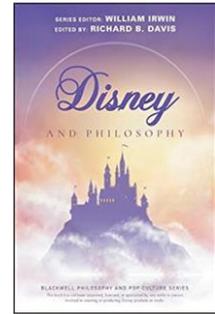
저자 : Richard Brian Davis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8년 11월 2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교양, 철학



### \* 디즈니 월드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 내는 흥미로운 대중문화서이자 철학서.

누구나 한번쯤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또는 창의적이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철학과 교수이자 이 책의 편집자이자 저자인 리처드 브라이언 데이비스는 바로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무궁무진한 영감과 철학적인 사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화,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을 의인화시켜 한 캐릭터로 만든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애리얼은 페미니스트들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겨울 왕국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사랑은 정말 공포마저 극복할 수 있게 해줄까? 월-E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일까? 하쿠나마타타는 어떤 철학이 담긴 말일까? 이 모든 질문들은 바로 우리가 디즈니사 작품들을 보며 공통적으로 가졌을 법한 질문 들이다. 디즈니사의 작품들은 언제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적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궁금함이야말로 모든 철학자들이 언제나 품고 있는 감정이며 모든 철학은 궁금증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바로 이런 점에서 철학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애니메이션 세계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스물 일곱 개의 장에서 디즈니사의 초기작인 미키마우스, 구피, 잠자는 숲속의 미녀부터 시작해 겨울 왕국을 통해 자유, 운명주의, 자유, 운명주의, 친구, 가족, 윤리, 정체성, 장애, 죽음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주제들 대해 탐구한다. 또한 이 책에는 디즈니사의 작품들을 사랑하는 서른 두 명의 저명한 철학자들이 분석한 디즈니사만의 철학, 디즈니사의 작품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 디즈니 테마파크에 대한 날카로운 담론이 담겨 있다.

디즈니사는 최근 픽사와 합병하면서 더 다채롭고 다양한 주제와 어우러진 캐릭터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여성주의 관점에 맞게 디즈니가 탄생시킨 새로운 공주 캐릭터들은 특히 그 변화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디즈니의 공주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고 수동적인 여성들이 아니라 왕자의 도움 없이도 홀로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당당하고 밝은 여성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디즈니의 개혁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들은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저자를 포함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대한 디즈니의 세계와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 <목차>

머리말: 철학은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 제1부: “저기에 있는 해초들이 더 푸르러 보여.”

제1장. 제멋대로 구는 아리엘: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 (메간 S. 로이드)

제2장.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물란에 나타난 진정성과 명예 (조지 A. 던)

제3장. 선 (Zen)과 상상의 예술 : 디즈니의 도피주의 VS 불교의 (스티브 바인 )

제4장. 히든 미키즈 (Hidden Mickeys) 와 신의 은둔 (로버트 K. 가르시아, 티모시 피카반스)

#### 제2부: “난 내 손을 쓸거야.”

제5장. “모든 이들의 특별한 질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의 관용과 (리처드 브라이언 데이비스)

제6장. 도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피 (Dopey)는 안된다? 백설공주부터 도리를 찾아서까지에 드러난 장애에 대한 딜레마 (케빈 민츠)

제7장. 백설공주부터 모아나까지: 디즈니 만화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변화 살펴보기 (에두아르도 페즈)

제8장. 언제나 팀으로 움직이기: 디즈니사의 가족 철학 (코디 쿠퍼)

(제6부 27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리처드 브라이언 데이비스 (Richard Brian Davis) 교수는 캐나다 톨데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다. 또한 『Alice in Wonderland and Philosophy』를 포함한 네 권의 책의 저자이자 편집자이다.

제목 : HANGER MANAGEMENT

가제 : 행그리: 우리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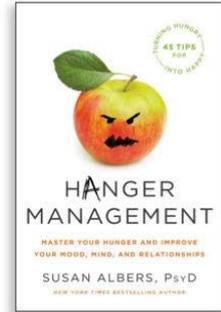
저자 : Susan Albers, Psy.D

출판사: Little, Brown Spark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건강, 자기계발



**\* 배고프면 화부터 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행그리 (hangr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배고파서 화나는’이라는 뜻으로 ‘hungry (배고픈)’ 와 angry (화난)의 합성어이다. 행그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다.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도 갑자기 웬지 모르게 언짢은 기분이 들고 갑자기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바로 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아예 놓치거나 한 번에 몰아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제때 해결되지 않는 굶주림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 책의 저자이자 심리학 박사인 수잔 알버스는 이 굶주림은 결국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고 경고한다. 인간은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낄 수록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고 말 음식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서 더 큰 허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 행동과 감각마저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버스 박사는 이 악순환을 끊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사는 우리가 올바르게 식단을 짜고 우리 몸에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면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좀 더 나은 수행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흔히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바빠서, 살을 빼야 해서,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면 우리의 허기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은 다른 식단 관련 책들과는 달리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대로 식단을 짜라고 조언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저자가 소개하는 10가지 행그리 요인 중 내가 어느 문제에 속하는 지 판단해보고 스스로 내 식단을 짜고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격려하는 책이다. 저자는 내가 먹는 것이 내 기분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버스 박사는 행그리에 대한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분석을 통해 먼저 행그리의 원인과 행그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그 다음 저자가 실제로 만난 수많은 고객들의 사례를 통해 각 원인과 증상에 맞는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적용해볼 수 있는 마흔 다섯 가지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우리가 무심코 가벼이 여기는 행그리

증상에 대한 이해와 나와 음식의 관계, 내가 가진 식욕의 특성에 대해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배워 볼 수 있는 책이다.

### <목차>

#### 제1부: 행그리 조절하기

제1장. 행그리에서 행복으로

제2장. 행그리 이해하기: 행그리는 어디에서, 왜 찾아오는 것일까?

제3장. 행그리 관리 프로그램

#### 제2부: 행그리 관리를 위한 조언들

##### 섹션1. 배고픔을 가져오는 요인들 관리하기

제4장. 식사 시 스트레스 요인 제거하기

제5장. 왕성한 식욕을 갖기 위해서 일단 잠부터 잘 자기

제7장. 내 위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제8장. 나쁜 습관 없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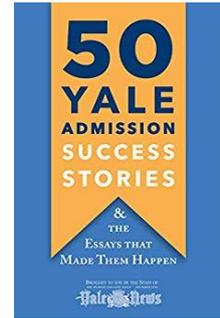
제9장.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하 생략, 총 2부, 4섹션, 48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수잔 알버스 (Susan Albers)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임상 심리학자이다. 『 EatQ 』, 『 50 Ways to Soothe Yourself Without Food 』, 『 Eating Mindfully 』 식습관과 관련 된 여러 책을 썼다.

제목 : 50 YALE ADMISSION SUCCESS STORIES  
가제 : 예일대학교 합격생들의 입학 에세이 50 선  
저자 : Yale Daily News Staff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20년 3월 1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교육



**\* 예일대학교 합격생들이 알려주는 대학 입시 에세이 공략법과 풍부한 사례들**

이 책은 예일 데일리 뉴스 (Yale Daily News)의 학생들이 직접 실제로 예일대학교에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이 입학 지원 시 제출했던 에세이들을 미래의 지원자들을 위해 엄선한 에세이집이다.

매년 미국 내 최상위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 중이다. 이들이 그 중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책은 예일 대학 진학에 성공한 지원자들의 에세이를 분석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해야 할지 알려주고 예일 대학 지원 시 유념해야 할 사안들과 유용한 조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모방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의 이력과 에세이 내용을 대조하여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어떤 맥락으로 자신의 경험과 글을 엮어냈는지 보여준다. 즉, 이 책은 그저 에세이 작성법에 대해서 지루하게 늘어놓은 설명들이 아니라 생생한 예시를 통해 지원자들이 큰 그림을 얻은 다음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등장하는 에드가 아비나라는 학생은 예일대학교에서 현재 정치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에세이에 멕시코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을 돕기 위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적었다. 또 다른 학생인 매들린 벤더는 자신이 어떻게 클래식과 환경학, 진화 생물학을 복수전공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지 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예일 대학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썼다.

이 책에는 이 둘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국가적, 환경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예일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예일 대학을 통해 발전시키고 싶은 잠재력은 과연 무엇이며 예일 대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적었다는 점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견해보라고 충고한다.

대학 입시 에세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인생의 각 순간에서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내가 가진 배경과 정체성, 흥미, 재능은 무엇인지 어떤 주제에 주로 관심이 있는지, 미래에 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이 세계와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글이다. 이 책은 예일대 입학만을 목표로 하는 지원자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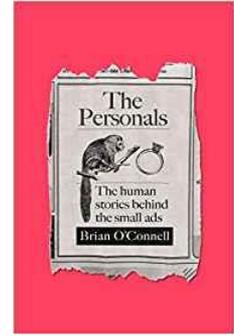
머리말

\* 실제 예일대학교에 입학 한 50인의 에세이 수록

#### <저자 소개>

예일 데일리 뉴스 (YALE DAILY NEWS)는 1878 년에 설립되었으며 학부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신문사이다

제목 : THE PERSONALS  
가제 : 줄 광고를 통해 보는 세상  
저자 : Brain O'Connell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10월 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현란한 광고들 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문, 웹페이지의 줄 광고들 속 너머있는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세상에는 여러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쿠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볼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언론인인 브라이언 오코넬은 남들과 조금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신문 지면이나 웹페이지 한 켠에 나온 짧은 줄 광고들을 훑어보는 일이다. 그 광고란에서는 평범한 반지부터 시작해 원숭이 한 쌍, 1 차 세계 대전의 독일군 헬멧 및 방탄 차량 같은 특이한 물건까지 팔고 있었다.

이 단순하고 짧은 광고에 등장하는 문구들과 판매인들에게는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이 광고 문구들은 이 책의 저자뿐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또한 그의 문학적 동지들 사이에서는 짧은 줄 광고를 직접 쓰면서 소설의 영감을 얻는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줄 광고에는 한 개인이 가진 사연과 풍부한 경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자가 줄 광고와 긴 인연을 맺게 된 사연도 줄 광고가 가진 이러한 매력과 관련이 있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처음 언론인으로서 첫 걸음마를 떴고 있던 시절 저자는 음산한 화요일 아침마다 그 날 회의에서 발표할 이야깃거리를 찾아 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선배 편집자에게 어떻게 하면 요긴한 사연들을 찾아 낼 수 있을지 물었고 그 선배 편집자는 놀랍게도 신문 지면에 난 짝막한 광고들을 한 번 훑어보라고 조언했다. 그 날 이후 저자는 약 이십 년 동안이나 줄 광고들을 보아왔고 그 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광고들과 줄 광고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자는 신문지면 줄 광고와 요즘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고 있는 거대 광고사가 기획한 광고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광고들이 전문 광고업체에서 상품의 판매 목적과 맞게 전략적으로 완벽히 짜인 상업적인 콘텐츠라면 줄 광고는 온라인이든 지면에 나오는 광고이든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매체라는 것이다. 줄 광고의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섹스, 결혼,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몇 세기 동안 이어진 상업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줄 광고들에 얽힌 사연들은 저자가 비교적 최근에 수집한 이야기들이며 오늘 날 아일랜드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군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메달이나 19세기 영구차, 아일랜드가 패했던 축구 경기 목록과 같은 지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물품들과 사연들 또한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2012년부터 시작해 인터넷과 신문지면에 등장한 흥미로운 줄 광고들을 찾아 그 광고를 낸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 그 판매 물품에 얽힌 그들의 사연을 기록한 자료들이 이 책을 통해 풀어놓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이고 때로는 기가 막힌 반전까지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담긴 따뜻하고도 흥미로운 책이다.

### <목차>

머리말

#### **제1부: 사랑과 상실**

- 제1장. 동양과 서양의 만남
- 제2장. 반지 없는 결혼식
- 제3장. 중세시대 스타일 드레스
- 제4장. 엄청난 기회를 만났을 때
- 제5장. 오랜 약혼 기간
- 제6장. 사랑에 중독되다?
- 제7장.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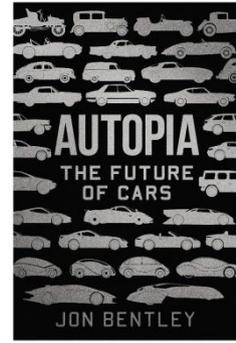
#### **제2부: 생존을 위한 물건들**

- 제8장. 방탄 차량
  - 제9장. 1급 기밀 품목들
  - 제10장. 언덕 오르기
- (이하 생략, 총 9부, 31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브라이언 오코넬 (Brian O'Connell)은 수상 경력이 있는 언론인, 작가 및 방송인으로 RTE 라디오 1 진행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최근 저작으로는 아일랜드와 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Wasted』가 있다.

제목 : AUTOPIA  
가제 : 오토피아, 자동차의 미래  
저자 : Jon Bentley  
출판사: Atlantic Books;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교양



**\*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 존 벤틀리보다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이야기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탑기어의 전 진행자, 티프 니들**

자동차가 발명된 지 거의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동차는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다. 자동차는 인간의 정착 생활 방식을 혁신하였고 도시와 시골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 덕분에 수억 명의 노동자들의 삶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했다. 현재는 약 13억대에 달하는 자동차들이 전세계의 도로를 누비고 있으며 2035년에는 그 수가 약 20 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는 아마 인구의 증가 속도를 가뿐히 초월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인기 자동차 프로그램 탑 기어의 프로듀서였던 이 책의 저자 존 벤틀리는 자동차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경험과 기쁨을 선사하는 놀라운 마법 그 자체이다. 때문에 자동차는 그 어떤 기계보다도 사용자가 깊은 애정과 교감을 느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엔진 소음, 가속 감각, 코너링 및 핸들링 특성을 통한 다양한 동적 경험, 컨트롤의 촉각 감각, 도어 개폐 방법, 스티어링 및 클러치의 무게가 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의 마법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지난 50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류의 사랑을 받게 될까?

오늘날 자동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진행과 더불어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자동차의 미래가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가 여전히 네 개나 되는 바퀴와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 안전, 효율성 및 속도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자동차 업계 내부자들은 지금 바로 이 시점이야 말로 자동차의 미래가 새로운 혁신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탐구하고 몇 년 안에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조망해보는 책이다. 자율 주행 트럭에서 둥근 골목도 볼 수 있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게 될 인공지능이 설계된 놀라운 자동차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의 동력이 될 다양한 후보들과 전지 자동차가 과연 충전 속도, 안전 면에서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실험해본 내용을 소개하고 자동차 원료로서의 수소의 잠재력을 분석해보고 디젤이 정말 사라져야만 하는 원료인지 따져본다.

자동차가 인간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기계인 만큼 자동차의 디자인 또한 자동차를 매력과 성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동차 디자이너를 만나 미래의 자동차가 새로운 매력과 함께 여전히 속도와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는 게 가능할지 알아볼 것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 목적지로 가는 최고의 경로를 알아서 탐색하는 자동차, 여전히 미래의 도로를 마음껏 누리게 될 클래식 카 등 과연 이런 자동차들은 지금 어떤 발전 단계까지 와있는 것일까? 자동차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탐색해보는 책이다.

#### <목차>

- 제1장. 연계성 및 자율성소개: 로봇 자동차의 부상
- 제2장. 불꽃 튀는 혁신: 대체 연소 및 내부 연소 엔진의 미래
- 제3장. 디자인의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 제4장. 앞서가는 속도: 고성능 자동차와 모터 스포츠의 미래
- 제5장. 해커 및 충돌 테스트 인형 : 안전과 자동화의 시대
- 제6장. 과거로 가는 미래: 클래식 자동차와 애호가들

#### <저자 소개>

존 벤틀리 (Jon Bentley)는 영국 채널 5의 더 가젯 쇼 (The Gadget Show)의 진행자이다. 그는 수년간 톱 기어 (Top Gear)의 프로듀서로 활동했으며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출판한 바 있다.

제목 : PROPELLED

가제 : 나를 이끄는 추진력: 권태, 좌절, 기대

저자 : Andreas Elpidorou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분량 : 207 페이지

장르 : 심리



**\* 부정적인 감정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원료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책**

지루함, 좌절 및 쓸데없는 기대감 같은 이런 감정들은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안드레아스 엘피도로우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서 몰아내야만 하는 불필요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어딘가 찝찝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갇혀버린 것 같을 때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권태, 좌절감, 기대감은 우리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즐거운 경험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연 그게 다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좀 더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적 요인에 끌려 다니는 삶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인정, 사랑을 갈망하고 성취감을 얻고 싶어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복잡한 욕망들로 이어져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가능할까?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에 주는 이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부정적인 상태가 인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저자는 오직 긍정적인 상태, 긍정적인 감정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인간의 풍부한 심리적 세계에 잠재되어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적인 감정은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경험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불행을 겪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행에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심리 상태인 권태, 좌절, 기대 이 세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권태와 좌절은 감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대는 감정적인 상태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저자는 기대감 또한 권태, 좌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현재 상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감정의 총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대, 권태, 좌절감의 유사성들을 살펴보고 이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견디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점들이 있다. 인간의 기대감이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감정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힘이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곧 인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기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끈이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권태감과 좌절 속에서 나만 탓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감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불어넣어줄 책이다.

### <목차>

제1장. "행복의 비결은 불행 일지도 모른다."

제2장. "분명 들리기는 하는데 왠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은 그런 목소리."

제3장. "혹시 죽은 듯이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제4장. "세상과의 접촉을 막는 보이지 않는 거품들 속을 허우적대는 기분이 드나요?"

제5장. "사막에서 며칠을 보낸 후 마신 물 같은" 제6장. "에너지 공급원인건 맞지만 당신의 가이드는 되어 줄 수 없고, 엔진은 될 수 있지만 방향 기어는 될 수 없는 것들"

제7장.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는 일, 아주 간단한 부차적 명제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제8장. "우리는 언제나 운명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제9장. "당신은 낙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장. "변화가 없는 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해줄 수 없다."

### <저자 소개>

안드레아스 엘피도로우 (Andreas Elpidorou)는 루이빌 대학교 철학과의 부교수이다. 2015년 7월에 출간된, 지루함에 대해 분석한 책 『The Quiet Alarm』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작가이다.